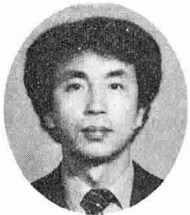


건강한 정신에서

산업재해 예방으로



삼미금속(주) 총무과

대리 공 영 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감소 시키고, 근로자 건강 관리에 관심을 고조 할 목적으로 매년 7월 한달을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으로 설정, 각종 캠페인을 동원 하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작업 환경은 인위적인 것이고, 또한 그 곳에는 많은 에너지가 도입되어 있는 점에서 자연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연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산, 작업장이라고 하는 인위적 특수 환경에 적응하여 합리적인 작업 행동을 하게 하려면 우선, 적응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해 발생의 기회를 끌어들이고 마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그외의 다른 일에는 열중할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나 회사에 출근시의 일들, 휴일에 있었던 일들이 직장의 안전보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되나 사실은 산업재해사고의 대부분이 직장 외부의 생활 속에서 가지고 들

어와 야기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는 부상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튼튼한 몸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운동부족, 수면부족, 과식 등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작업에 임할 때는 잡념을 갖거나 한 눈을 팔지 말고 자기 일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시작전에 공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이나 기계, 공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평소에 선배와 상사가 가르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의 시작이 된다. 「사고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부상을 경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우리회사 제품이 타 경쟁회사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싸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작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타 회사보다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한다거나 조금은 위험한 줄 알지만 이것이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짓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게 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심적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며 같은 작업장의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며 자기의 몫까지 동료근로자에게 넘겨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인적인 피해와 함께 자재의 손실과 기계, 설비를 손상하게 하여 그 손실만큼 제품의 제작 원가를 올리는 결과가 되어 싼 값에

판매 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일상작업속에서 자기가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고 또한 제 3근로자가 자기 대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자신보다 기술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간접적인 손실의 막대함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자면 안전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작업은 무리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며 위험한 짓을 하지 말고 부상의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룩되는 것이므로, 최대의 능률작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제일로 근무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직장에서 일정한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간다.

직장인은 자기가 소속한 직장을 사랑하고 그 직장을 번영케 해야 한다. 직장인은 천직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 직장인은 직업을 통하여 나라에 공헌하고, 직장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會社는 곧 나다」하는 연대의식, 「나와 내 회사는 하나다」하는 일체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정열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직장의 주인다운 자세다. 이러한 주인 의식의 창의력과 자기진작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일진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 의식의 배양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소속원이 모두 투철한 주인 의식속에서 회사일을 내일처럼 생각하여 열과 정성을 쏟을 수 있

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소외감과 불평 불만에 젖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때 명실공히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명감에서 일 할때 마귀같은 산업재해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전은 생산활동의 흐름속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생산과 별개의 어떤 과정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산과 안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수 많은 경우를 볼 때마다 정리정돈이 안되어 주위 환경이 불결하거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불안정한 행동과 태도 등에 기인 되고 있음을 흔히 볼수 있다. “사고에서 안전을 배우지 말라”하는 영국에서 내세웠던 표어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